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7/14 월요일

아침의 누림**롬 8:2-3, 6**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창 2:8-9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롬 7:23, 25

23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계시함으로 시작한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이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단체적인 표현으로 끝맺는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로 묘사된다(21:12, 14). 이러한 구성체는 삼일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표현으로 하여 건축된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다. 성경의 이러한 시작과 끝 사이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위치한다. 그의 서신서들은 신성한 계시를 완성한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의 초점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2장, 381-382쪽)

~~~

생명의 영의 법이 로마서 8장의 주제이다. ... 생명은 그 영의 내용과 결과이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과정을 거쳐 내주하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타락한 몸의 지체 안에 거하는 사탄에 속한 죄의 법(롬 7:23, 17)에서 우리를 해방한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영에 속한 것이다. ...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생명의 영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법은 그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님과 사탄은 모두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후에 외적이고 객관적인 활동들로 일하지 않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한다.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롬 8:2 각주 3)

로마서 8장 2절에서 법과 그 영과 생명은 법과 죄와 죽음과 대조를 이룬다. 두 법은 서로 반대되며, 그 영은 죄와 반대되고, 생명은 죽음과 반대된다. 로마서 5장에서 은혜는 우리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며, 죄 곧 우리 안에 체현된 사탄과 반대된다(21절). 8장에서 그 영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죄와 반대되신다. 따라서 5장의 은혜는 8장의 그 영, 즉 은혜로서 우리 안에 체현되셔서 우리 안에 사시며 활동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이 '생명의 영'이라는 구 안에서 그 영과 연결되어, 앞 장들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8장에 있는 그 영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생명은 그 영께 속하고 그 영은 생명에 속한다. 이 둘은 사실상 하나(요 6:63)이다.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체험한다(롬 8:2 각주 2)

로마서 8장에 계시된 영적인 생명은 사중(四重) 생명이다. 첫째, 이 생명은 그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었다(2절). 둘째, 이 생명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에서 생명이 되었다(10절).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심으로써 혼 안에서 생명이 된다 (6절). 결국 이 생명은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이 될 것이고(11절),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변형(빌 3:21),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롬8:23).(롬 8:2 각주 1)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내주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주요 기능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죄와 죽음의 법으로 거하고 있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다(롬 7:23-25). 이러한 해방은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롬 8:2 각주 6)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 2장

7/15 화요일

아침의 누림**롬 8:9-10, 13-15**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갈 5:16-17**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엡 3: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 왔는지를 보여 준다.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너무나 육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비탄에 잠겨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다. ... 성경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말은 무의미하다. 말씀만이 실재이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취하자.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이것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다.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씀을 갖는다. ... 우리 모두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인격이 계시며, 이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권,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7장, 866-867쪽)

오늘의 위를 말씀

로마서 8장 4절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 준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오직 삼일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함을 가질 수 있다.

로마서 8장 9절은 내주하시는 영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하시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거하심시오’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의 이 단어의 어근은 ‘집’이라는 단어와 같으며, 따라서 이 단어는 ‘거주하다’나 ‘거처를 정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전달하는 개념은 어떤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지를 정하는 것, 즉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얻으시고 도달하시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고전 15:45하).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는 삼일 하나님께서 거치신 모든 과정과 성취하시고 얻으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이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즉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정착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시게 될 것이다. 비록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매우 많이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실 자유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충분한 공간을 얻으시어 정착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리 전집, 1982년, 1권, 애너하임에서 전한 다양한 메시지, 6장, 45-4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리 전집, 1973-1974년, 1권, 신약에서 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7장

## 716 수요일

### 아침의 누림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요 14:17-18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 요 3:5-6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갈 4: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분의 영께 달린 문제임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속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고후 3:17),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한 영이시다(고전 6:17).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그 영(Spirit)이실 뿐 아니라, 주님과 합한 믿는 이도 영(spirit)임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상태와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변할 수 없는 근원과 위치를 가리킨다. 근원 곧 새로운 출생에 따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체험과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께 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98-99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 영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결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을 것이다. 육체 안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그 영으로서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다.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실재의 영에 관해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8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7절에서 실재의 영이신 ‘그분’이 18절에서 주님 자신이신 ‘나’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 공기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5:45).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또한 그 영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거하시고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심을 계시한다. 주님은 그 영이 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절에서 우리는 그 영의 내주하심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서신서에서 성취되고 완전히 발전되었다(고전 6:19, 롬 8:9-11).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의 한 사람으로서 즉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로 가시지만, 육체에서 그 영으로, 즉 생명주시는 영(고전 15:45하)으로 변형되시고 변화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곧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영이신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주시는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체험이 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독교가 이 진리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든 반대하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신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증언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심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93-95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 7/17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롬 8:10-11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롬 4:24-25

**24**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5**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 롬 6:3-4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롬 8: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영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밝혀 준다. ... 바울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과 그 영과 그리스도, 이렇게 신격의 셋 모두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께서 계신다(요 4:24, 고후 3:17, 롬 8:11).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이 영께서 영원 과거부터 계셨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기원이신 분께 속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이 영께서 육체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체현과 실재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분께서는 영원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신성뿐 아니라 육체 되심을 통하여 얻으신 인성도 있으시다. 또한 이분께서는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분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며(롬 8:10),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죽음을 처리하시려고(2절)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 자신을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살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즉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살 수 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95-96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을 생명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 이 절에는 그 영이 언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사실에 따르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체험에 따르면 그분은 그 영이시다. 우리가 체험하는 방면에서 그분은 그 영이시다.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에 관하여 말하는 방면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구주와 구속자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그 영이시다. 구속자로서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고, 내주하시는 분으로서는 ‘그 영’이라는 칭호가 있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두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분의 양면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가 로마서에서 핵심 요점이다.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계시고,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며,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96-97쪽) 이제 밖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므로,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의(義) 때문에 생명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몸의 죽은 상태가 드러난다. 우리 영 안에는 영 그리스도께서 의로 계시므로 그 결과는 생명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사탄이 죄로 존재하므로 그 결과는 죽음이다. (롬 8:10 각주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 때문에 죽어 있다. 내주하는 죄는 우리 몸에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은 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의를 통해 우리 영에 생명을 가져다주신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또한 이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영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도 생명이다. 그리스도 자신이신 그 영께서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 생명이 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264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7/18 금요일

### 아침의 누림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 롬 5:18, 21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8: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 고전 6:17, 19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 골 3:3-4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과 함께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었고 무능하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셨습니다(롬 8:3), 이 죄는 타락한 사람의 몸에서 근절 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롬 8:10 각주 4)

로마서 8장 10절은 타락한 사람의 몸과 대조되는 거듭난 사람의 영을 언급한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급된 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조건에서만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이 되시는 데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의 때문에 생명이 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롬 8:10 각주 5)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신성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과 연합시키셨다. 그러므로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고전 6:17). 이제 우리 영은 다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롬 8:10 각주 7)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를 받았는데, 이 의는 우리 존재 안으로, 즉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이 의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롬 5:18, 21).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제 생명이 되었다. (롬 8:10 각주 6)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항상 그분의 세 가지 신성한 속성인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주의하신다. ... 의는 하나님의 행동과 길과 행위와 활동에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거룩함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며, 영광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을 본다. 로마서에 있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속성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즉,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고,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것이며, 영광스럽게 됨은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이것이 의롭게 됨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는 과정 안에 있다. ...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지만, 또한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일해

날어져야 한다. ...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휴거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 자신 안으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끌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의롭게 됨은 우리 영과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하게 됨은 주로 우리 혼에 적용되며 우리 몸이 약간 적셔지게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영광스럽게 됨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과 관계된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뜻이다. 이 의를 통해 우리 영은 살아나 실지로 생명이 된다. 그러나 우리 혼 안에는 아직 신성한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둬으로써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생명의 영께서 우리 생각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은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하여 협력한다면 적시시고 퍼져 나가시는 이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에서부터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확장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릴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일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7, 273-275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7

7/19 토요일

### 아침의 누림

**롬 8: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엡 3:14-21 (16-17, 19)

-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는 세 항목을 본다. 첫째, 우리는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본다. 둘째,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본다. 이것은 '예수님'(육체 되심을 강조함), '그리스도'(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함), '살리신'(부활을 강조함)이라는 단어들에 암시되어 있다. 셋째,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심을 본다.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둘레까지 곧 우리 온 존재에까지 이른다.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신성한 치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가리킨다(엡3:16-19).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 죽어 가는 몸에 생명을 주시어, 이 몸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활기 있게 하신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9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02, 97-98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영은 부활의 영이다. ... 우리 영은 생명이고 (롬8:10) ... 또한 우리 생각도 생명이다 (6절). ... 우리 몸은 죽어 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죽어 가고 있는 우리 몸에까지 주어진다.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이 생명에 동참할 수 있고, 이 생명으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내주하시는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고전 15:45, 고후 3:17).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전기는 이에 대한 탁월한 예이다. 전기가 건물에 설치되었을 수 있지만 전류는 차단될 수 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전기로 설치되셨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그분께 자유로운 통로를 열어 드리며, 대부분은 그분께 열려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감정이 그리스도께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감정 안에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 여러분은 "주님, 저의 감정을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저의 감정 안에 생명으로 공급하실 수 있도록 저의 감정을 돌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 ... 이것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면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 존재의 각 부분과 모든 통로로 확장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여러분 존재의 감추어진 부분들을 관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자신을

그분께 열어 드린다면, 그분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심지어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도 나누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 분의 생명의 모든 풍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되셨다(롬8:2). 과정을 거치시기 전에 ...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라는 완전한 과정을 거치시기 전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용하신 생명의 영이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분이시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요 20:22) 아주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용하신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 영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자(롬 8:10). 주님은 거둬냄에 의해 우리 영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에서 부터 우리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고 계신다.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에게까지 확장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신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265-266쪽, 메시지 17, 272-273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권, 메시지 16

7/20 주일

### 아침의 누림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겔 37:5**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으로 숨을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 **골 3:1-4**

-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